

"러, 우크라이나 접경 벨라루스 3곳에 군병력 증파"

송고시간 | 2022-02-07 11:21



"연합훈련 목적 추정"...훈련장서 수백km 2곳에도 탱크·미사일 등



4일 위성사진에 포착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인 벨라루스 레치차 내 러시아 병력

[맥사(Maxar) 제공·연합뉴스 자료사진. 재판매 및 DB 금지]

(서울=연합뉴스) 이의진 기자 =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벨라루스 일부 지역에 병력을 새로 배치 중인 모습이 포 착됐다고 미 CNN방송, 로이터통신이 6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이들 매체는 지난 4일 상업위성 업체 맥사(Maxar)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,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국 경에서 50km 이내 세 곳에 무장과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.

이런 움직임은 10일부터 진행될 러시아·벨라루스군간 연합훈련과 일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CNN은 전했다.



CNN 등은 훈련 장소인 벨라루스 남부 루니네츠 내 비행장에는 대공 방어시스템인 S-400과 전투기 Su-25 10여대 등 이 배치됐다고 보도했다.

지난 5일 러시아 국방부도 공식적으로 루니네츠에 이런 무장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.

루니네츠에서 수백km 떨어진 두 곳에서도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 하고 군사 기지를 설치 중인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.

이곳에서 동쪽으로 27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남동부 레치차 지 역에는 탱크, 곡사포를 포함해 기동 전투 차량이 배치돼 있으며. 막사 등 야전 숙영 시설도 설치되고 있다.



















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...



레치차 남동쪽으로 우크라이나 국경과 25km 떨어진 옐스크 인근에도 단거리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러시아 병력이 새로 배치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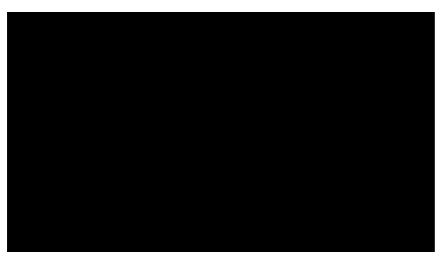
영국 군사정보업체 IHS제인스는 옐스크에 3개 이상의 최첨단 포병부대인 대대전술단(BTG) 소속 분대들이 주둔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.



4일 위성사진에 포착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인 벨리루스 옐스크 내 러시아 병력

[맥사(Maxar) 제공·연합뉴스 자료사진. 재판매 및 DB 금지]

pual07@yna.co.kr



유튜브로 보기

관련기사

"러, 우크라 접경에 탄도미사일도 배치...위성사진 포착"

美당국자 "러,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민간인 5만명 사망"(종합)

러, 자국 국영방송 중단 독일에 보복...'도이체 벨레' 송출 금지

미, 우크라 침공시 러 추가제재안 검토... 금융·기술·군사 망라

美안보보좌관 "올림픽 끝나기 전 러의 우크라 침공에 대비해야"(종합)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2/02/07 11:21 송고

#벨라루스 #우크라이나 #미사일 #이스칸데르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''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''

● 뉴스

마스크만 빼고...사회적 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사라진다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…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"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

▶ 02:22

[영상] 입·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나 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

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! 결국 우크라에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된 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댓글 많은 뉴스

집건희 여사 팬카페, 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 ☑ 145 ^{철에 고발}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...美와 더 강력한 동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

련과목 2개 수강"

2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☞ 66 안 맞아"(종합)

3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⋒ 61 대병원 자원봉사

4 두문불출이재명,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활 № 56 동재개 예열?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⊕ 40 힐 예정"

뭐하고 놀까? ## 👺 →

유튜브채널 🍱



















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/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+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

계약사/제휴문의

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관련사이트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

외국어